

ONE TABLE

원
테이블:
7.
PAPER
TO
SPACE,
한국관

아르코예술기록원
본원 열람실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2층

Per il Gronchi della ICCM che ha fatto il rilievo:
è discusso nella posizione dell'edificio
in relazione al Padiglione Germanico
bisogna controllare la figura
che è limitata dai lati (e dagli
spigoli) del Padiglione Germanico, del
Padiglione Olandese, e dell'edificio
adesso. Per un problema in via
per gli altri.

2026년 8월 12일~
11월 30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주말/법정공휴일 휴관
무료 관람

One Table: 7.
PAPER TO SPACE,
Padiglione Corea

COOREA

ONE

SHEET

importante che il telaio sia
avanzato di almeno
cm 4 rispetto
alle lettere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컬렉션

규모	2,090건 (17,383점) 한국관 전시: 852건 (11,014점) 한국관 운영: 197건 (2,593점) 만쿠조&세레나 건축사무소: 687건 (2,923점) 연관자료: 354건 (853점)
생산시기	1993년~현재
생산자	한국관 전시추진단(예술감독, 참여작가 등), 김석철, 프랑코 만쿠조, 김은정(한국관 총괄매니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

[S1] 한국관 전시

- [SS1]** 1995년 제46회 미술전
- [SS2]** 1996년 제6회 건축전
- [SS3]** 1997년 제47회 미술전
- ...
- [SS27]** 2024년 제60회 미술전
- [SS28]** 2025년 제19회 건축전

[S2] 한국관 운영

- [SS1]** 한국관 건립 추진
- [SS2]** 한국관 공간 관리
- [SS3]** 전시 사업 운영
- [SS4]**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S3] 만쿠조&세레나 건축사사무소

* 이 시리즈의 계층은 기증자의 원질서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A] 서신 및 첨부문서

- 1 (발신)아키반, (수신)만쿠조&세레나 건축사사무소
- 2 (발신)만쿠조&세레나 건축사사무소, (수신)아키반
- 3 (수·발신)이탈리아 기관
- 4 (수·발신)베니스비엔날레
- 5 (수·발신)한국 기관
- 6 (수·발신)시공사(ICCEM)
- 7 (수·발신)기타 시공 및 자문 업체

[E] 건축 허가 문서

- 1 환경위원회 의견서
- 2 민간건축허가부서
- 3 소방부서
- 4 사전협약, 허가
- 5 허가 개요
- 6 분류를 위한 시의회 결의
- 7 도시계획 시행규정 개정안
- 8 도시설계 상세계획 업데이트
- 9 지역관리계획

[B] 그래픽 작업

- 1 기본 설계 스케치
- 2 건축 도면

[C] 건축모형

- 1 중간 보고용 모형

[D] 설계 설명서

- 1 만쿠조 & 세레나 건축사사무소

[F] 시험, 적합성 검사, 기술 검토

- 1 금속재료 품질인증 Ferdofin社
- 2 지질조사 Sacchetto社
- 3 마이크로파일 진동 분석 Elletipi社
- 4 철골 인장강도 시험 (파도바대학 인증서 no.164001)
- 5 철골 인장강도 증빙 (파도바대학 인증서 no.164050)
- 6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파도바대학 인증서 no.164050)
- 7 구조 시험 (엔지니어: Perluigi Moro)
- 8 전기설비 적합성 인증
- 9 전기배선 계획(Rodella Diego 스튜디오)
- 10 냉난방시스템 적합성 인증(Imp. Veneziana s.r.l)
- 11 수목조사보고서 (유토피아 스튜디오)

[G] 회계, 계약, 지급 등

- 1 ICRAS社 (창호/문)
- 2 ICCEM社 (주관 시공사)
- 3 기타 건설업체

[H] 사진 자료

- 1 공사 이전 부지
- 2 설계안 패널
- 3 문화체육부 장관과의 면담
- 4 모형 사진
- 5 착공식
- 6 공사과정
- 7 개관식
- 8 완공된 모습
- 9 제6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개막식
- 10 동계/하계 모습
- 11 제8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개막식
- 12 완공된 모습 (Chemollo)
- 13 보수 공사
- 14 수목과의 관계
- 15 각종 행사

[I] 각종 홍보물

- 1 전시용 패널
- 2 포스터
- 3 잡지 기사
- 4 신문 기사
- 5 만쿠조 방한 및 수상

[J] 리모델링 계획

- 1 타당성조사 (1단계)
- 2 타당성조사 (2단계)

한국관, 기록으로 다시 짓다
글. 박수정
(아르코예술기록원 학예연구사)

1995년 6월, 베니스비엔날레 창설 100주년이 되
던 해에 한국관은 자르디니 공원에 마지막으로 신
설된 국가관으로 개관했다. 개관 이후 건물은 주변
과 분리된 채 일었고, 이제는 증개축이라는 실질적
인 물음 앞에 서 있다. 개관 30주년과 증개축 논
의가 맞물리면서 포럼과 기사, 연구가 이어졌고, 높
아진 관심과 함께 흩어져 있던 기록도 하나둘 모
습을 드러냈다. 기록의 출현은 익숙한 건물을 다시
보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관을 지었고, 개관 이래 전시와 공간을 운영해
왔으며, 이제 그 전 과정의 기록을 수집한다. 자신
이 지은 집의 기록을 자신의 서가에 구축하는 일.
한국관 컬렉션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2023년 공
동 설계자 프랑코 만쿠조(Franco Mancuso)가 한
국관 설계 기록 전향을 아르크에슬기록원에 기증
하면서, 건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비로소 그 서가에 들어왔다.

종이 위의 한국관

한국관은 유리과 금속으로 지어지기 전에 종이 위에서 먼저 지어졌다. 1960년 현대미술가협회는 «제6회 현대전»을 한국관 건립 기금 모금전으로 열었고, 1987년 한국미술협회는 석조 상설관의 도면을 비엔날레 측에 제출했다. 1992년에는 구 동독관을 배정받아 개조하는 방안이 서한을 통해 논의되기도 했다. 실현되지 못한 이 계획들은 도면과 서신 속에 한국관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으로 남았다. 1993년부터 본격화된 김석철과 프랑코 만쿠조의 설계 역시 종이 위에서 시작되었다. 서울과 베니스를 오간 팩스와 스케치, 허가 조건과 설계 수정을 담은 행정문서 사이에서 합의가 자라났고, 합의의 형태가 되어 마침내 자르디니의 언덕 위 하나의 공간에 도달했다.

첫 번째 기적, 건물이 지어졌다

자르디니의 자리는 선물처럼 주어지지 않았다.¹ 자르디니 유일의 언덕 지형과 기존 수목을 보존할 것, 주변의 조망을 가리지 않을 것. 어렵게 확보한 부지는 여러 제한이 겹친 장소였다. 한국관의 설계는 ‘건물’이 아니라 ‘장소’로 읽을 때에 이해된다. 유리로 감싼 투명한 벽과 지면에서 들어 올린 바닥은 두 건축가가 이러한 조건에 응답하며 찾아낸 해법이였다. 두 설계자가 이룬 합의는 베니스의 행정과 건축 언어로 다시 번역되었고, 시청과 베네토 주, 비엔날레 본부를 설득하는 문서가 되었다. 1994년 베니스 시장 마시모 카치아리(Massimo Cacciari)는 한국관의 건립을 두고 “작은 기적”이라 말했다.² 불가능해 보이던 자리에 국가관이 서게 된 성취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 성취가 제약과 협상과 타협의 결과였음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건축허가를 “건축이 도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허가”³라 쓴 김석철의 기록처럼, 남은 문서들은 하나의 건축이 낯선 도시에 자리를 얻기까지 이루어진 협의와 조정의 기록이다.

두 번째 기적, 기록이 도착했다

절정의 기록은 제도가 남겼고, 설계의 기록은 한 사람이 남겼다. 설계의 전 과정에서 생겨난 종이들은 흩어지지 않은 채 국경을 넘어 한국에 도착했고, 만쿠조의 기증은 한국관을 둘러싼 '두 번째 기적'이라 불렸다.⁴ 자료를 찾고 기증으로 잇기 위한 오랜 협의가 있었고, 기록이 들어온 뒤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형식으로 남은 자료를 정리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기록 사이의 공백은 결정의 맥락과 관계자들의 경험을 담은 구술채록으로 보완했다. 문서와 기억을 나란히 놓고 서로 비추게 하는 과정 속에서, 흩어져 있던 설계의 시간은 하나의 아카이브가 되었다.

테이블 위의 한국관

그렇게 모인 기록은 열람실 테이블 위에 다시 놓였다. 1993년 이전의 건립 구상에서 출발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기록 사이로 이어진다. 스케치와 도면집을 직접 넘겨볼 수 있는 ‘설계자의 ‘이블’과 구술채록 영상을 지나면, 국내에선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설계 의도와 공간적 특성을 보여주는 1994년 기공식 기념 전시 패넌과, 한국관 건립의 전 과정을 정리한 연표에 이른다. 중심에 놓인 <Tracing the Korean Pavilion in Venice>는 여덟 단계에 걸쳐 변화한 계획안을 3D 모델로 다시 세운 것이다. 연구팀⁵은 그어진 선보다 지워진 선을 좇아 아카이브를 읽었고, 도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유추하되, 그 근거와 한계를 함께 밝혔다. 이는 완성된 건물의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이 수많은 선택과 수정 그리고 협의를 거쳐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렇게 지어지지 않은 계획안들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공간의 형태를 얻고, 완성된 한국관 뒤에 남아 있던 여러 설계의 가능성과 마주한다.

기록은 다시 읽힌다

아카이빙은 지나간 것의 보존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록을 연결하고 공백을 질문하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추와 판단에 근거를 더해 다시 기록으로 남기는 일까지를 포함한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해 온 과정 자체를 하나의 아카이브로 제시한다. 서른 해 전, 종이와 공간으로, 공간이 다시 기록으로, 그리고 이 기록은 언젠가 한국관을 위한 종이가 될 것이다. 기적은 되풀이되지 않지만, 기록은 다시 읽힌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컬렉션〉
자세히보기

로그인 후 기록물 열람 예약이 가능합니다.

기록으로 살려낸 한국관의 모습들

한국관 건축역사기록사업의

대장정을 돌아보며...

글. 전진영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비엔날레 행사의 주무대인 자르디니공원에 세워진 마지막 국가관이다. 한국관은 건축가 김석철이 베니스건축대학의 만쿠조 교수와 협력하여 건축설계를 진행하였고 현지 업체들이 시공을 맡아서 베니스비엔날레 창설 100주년인 1995년에 준공한 건축물이다. 한국관의 건립은 최초의 기획단계, 인허가를 위한 현지 부서들과의 협의 과정, 건축설계 및 시공의 기술적 해법까지 참으로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는 국가적 사업이지만 그 소재지가 이역만리 타국이라는 점과 인허가 조건 등에 대한 현지에서의 협의 자료 및 문서들이 한국에는 없다는 점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30년 이상이 경과했던 사안이다. 그간 한국관 건립에 대해서는 건축가 김석철이라는 단일 통로로 전달된 내용만 알려져 왔었는데, 2016년 김석철 선생의 별세 이후에는 그가 관리하던 자료들조차 망실되어 한국관 건립의 역사는 완전히 묻혀버릴 위기 앞에 놓이기도 했다.

2019년 상황의 반전이 일어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의 담당자들이 베니스의 만쿠조 스튜디오(Mancuso e Serena Architeti Associati)를 방문하여 한국관 건축자료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심스레 기증을 요구했는데, 만쿠조 교수가 이를 수락한 것이다. 만쿠조 교수는 한국관의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의 자료들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한국관의 주인인 한국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도 하던 차에 자신을 찾아온 아르코 담당자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기증을 결단했다고 한다. 몇 가지 절차적인 단계를 거쳐서 4년 후인 2023년까지는 만쿠조의 한국관 건축자료 전량이 서울의 아르코예술기록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2023년 가을, 만쿠조 교수가 서울시의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맡아 한국에 오게 되자 아르코는 긴밀하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축 관련한 라운드테이블과 만쿠조 부부의 구술채록을 기획한다. 만쿠조 부부와 20년 넘게 교분을 이어온 나는 아르코가 기획한 라운드테이블과 구술채록의 진행을 맡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아르코가 추진하는 한국관의 건축역사기록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이번의 《원 테이블: 7. PAPER TO SPACE, 한국관》프로젝트도 그 연장선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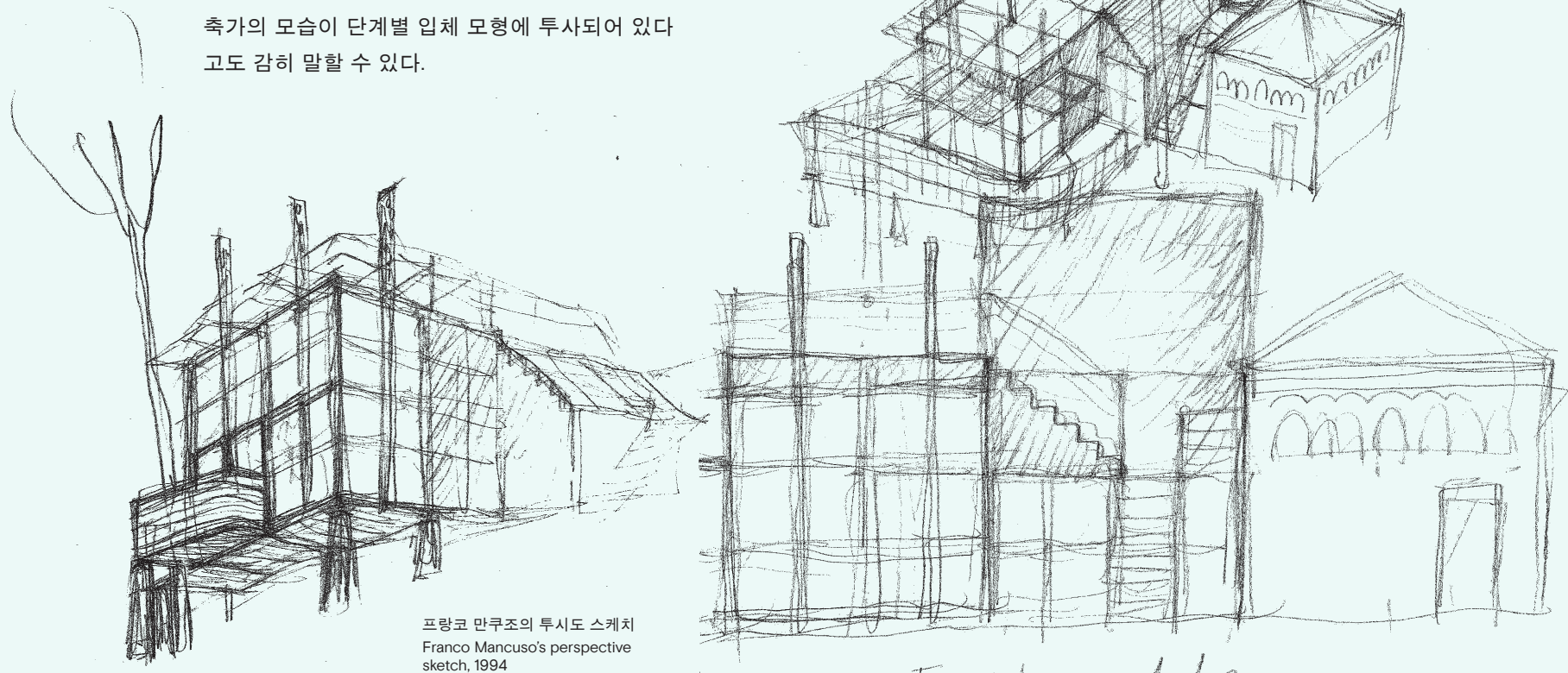
2023년 10월 25일 서울 대학로의 아르코미술관에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만쿠조 부부는 한국관 건립의 역사와 향후 리모델링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 아울러 일부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한국관의 합법성 여부, 즉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다는 의혹도 만쿠조 부부의 차분한 설명을 통해 해소되었다. 패널토론에서는 한국관에서의 전시 경험과 활용방안 등이 거론되었으며 한국관의 입지 및 건축 특성에 기반한 전시기법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당시 라운드테이블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라운드테이블 다음날 만쿠조 부부는 아르코예술기록원을 방문하여 기증자료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자료기증을 마무리짓는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그 다음날인 10월 27일 대학로의 아르코예술극장에서는 만쿠조 부부의 구술채록 영상 촬영이 있었다. 내가 이탈리아어로 진행한 인터뷰 자리에는 공동의 지인이자 김석철-만쿠조의 연결고리인 김경수 명지대 명예교수가 동석하였다. 구술채록의 1부는 김석철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한국관의 설계, 시공 등에 대한 만쿠조의 증언에 초점을 맞추었고 2부에서는 주로 세레나 여사와의 대담 형식으로 한국관 리모델링의 대안 모색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 대담의 내용을 책자 및 영상물로 정리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 2025년 연말에는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구술채록서의 출간과 영상자료의 편집을 마칠 수 있었다.

2024년 6월에는 근현대건축역사를 전공하는 명지대 이종우 교수를 중심으로 만쿠조 기증자료 아카이빙 연구팀이 구성되어 4천여 점에 달하는 자료들의 내용을 규명하는 한편 개별 자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르코예술기록원의 분류방식에 따라 재분류, 정리하는 작업을 착수하였다. 만쿠조 기증자료에는 개인 서신, 공문서, 구상 스케치, 건축 도면, 현지 업체 관련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현장 및 건축물의 사진 등 실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이 섞여 있다. 연구수행을 위한 제안발표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조차 이 연구사업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6개월 넘게 밤낮없이 작업한 결과 연구팀은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지금은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로 작성된 만쿠조 기증자료의 인벤토리 및 개별 항목에 대한 서술이 아르코예술기록원의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상태이다. 현지 관계자들과 공유하여 향후 한국관 관련 협의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기반을 구축한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다.

아카이빙 작업과 병행하여, 2024년 여름에 아르코예술기록원은 한국관 건립에 관여했던 국내 인물들에 대한 구술채록 사업을 시행하였다. 연구를 총괄한 이인범 상명대 명예교수는 주로 미술계 인사들과 문화행정 담당자들을 면담하였고, 나는 건축계 인사들에 대한 구술채록을 맡았는데, 특히 김석철 선생 옆에서 계획안을 작성했던 김석우의 증언은 한국관의 건축구상 변화과정을 재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만쿠조 기증자료의 아카이빙과 한국관 건립 관련 인사들의 구술채록 증언을 통해 한국관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났다. 한국관 건립이라는 큰 모자이크 그림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그간 김석철 버전으로만 존재해 왔던 한국관 건립 역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모든 사안의 인과관계와 관련 인물들의 역할이 밝혀진 것이다. 이번에 아르코예술기록원이 《원 테이블》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한국관 이야기의 핵심은, 3D 모델링을 통해 재구성한 한국관의 단계별 모습이다. 구체적으로는, 30여 년 전 두 건축가가 주로 수작업 스케치나 드로잉, 도면을 팩스로 주고받으며 건축계획을 발전시킨 과정을 입체적 형태로 재구성한 성과물이다. 한국관의 건축 구상이 온전한 도면의 형식으로 정리되는 1994년 4월까지의 두 건축가 사이의 소통이 개념적인 도상자료의 교환으로 이루어졌다. 현지 관계부서들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작성한 단계별 계획안은 두 건축가의 건축철학과 성향이 타협한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무려 5개나 되는 인허가 부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재료나 구법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서의 의미도 가진다. 개략적인 스케치나 드로잉으로는 입체적 재현이 불가능하지만 만쿠조 교수 부부의 기증자료에는 단계별 고민의 내용이 서신 등의 기록물로 남아 있어서 3D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입력값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건축허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수해’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한 30여 년 전 두 건축가의 모습이 단계별 입체 모형에 투사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만쿠조 기증자료가 이미 일반에 공개되었지만 건축 전공자들에게도 난해한 대목들이 많다. 상이한 언어, 복잡한 현지 상황, 법규 및 인허가 체계, 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 때문이다.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입력한 결과물을 궁극적인 건축물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번 연구사업의 성과는 우리 문화예술계를 위한 소중한 결실이다. 한국관 건립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던 시절의 혼란과 이견들이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정리되고 한국관의 바람직한 미래상 설정에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작용하면 좋겠다. 특히 한국관의 건축 가치에 대한 미술계와 건축계 간의 극명한 시각 차이를 생각하면 이 연구사업의 성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한국관의 건축역사기록사업에 우연히 연루된 내게도 이 연구사업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 만쿠조, 김석철과의 개인적 인연을 연구의 형태로 매듭지었다는 뿌듯함이 가장 큰 보상이다. 이 연구사업의 가치에 공감하여 함께 수고한 연구진 모든 분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복한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신 아르코의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프랑코 만쿠조의 투시도 스케치
Franco Mancuso's perspective sketch, 1994

Fornire uno lo spazio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및 운영 연구



- * 구술채록영상과 채록문은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의 기억

구술자: 프랑코 만쿠조, 에르네스타 세레나

연구자: 전진영

- * 2023년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및 운영연구 II. 한국관 건립과 리모델링 방안』 채록 일부를 발췌한 문장입니다.

현지 인사들과의 접촉 및 건축허가의 전제

만쿠조 “...우리가 방식을 생각해냈어요. 이를테면 ‘당신들에게 건축행위의 시한부 권한을 부여하는데 건축은 경향 구조로서 해체가능해야 하고, 8년 후 우리가 부지의 반환을 요구하면 건물을 철거해서 가져가는 조건입니다.’”
만쿠조 “두 번째 문제는 나무들이었지요. 건축하되 보호수목들은 건드리지 마라. 중요한 건 그냥 나무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르디니 공원에 백 년 이상 존재하는 뿌리들도 나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한국관을 짓되 지상의 나무나 지하의 뿌리를 모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진영 “이건 마치 수학 문제 같네요.”

만쿠조 “문제는 이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하는 거였죠.”

만쿠조 “...마시모 카치아리 시장을 상대해야 했던 게 다행이었는데 ‘적어도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관은 남한, 북한이 아닌 코리아로 해야 합니다.’라고도 했어요.”

김경수와 김석철, 프랑코 만쿠조의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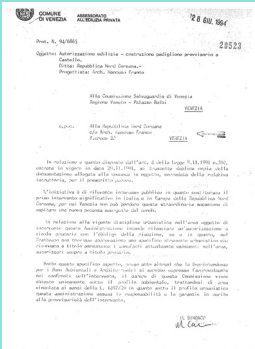
만쿠조 “... 우리는 함께 비엔날레 전시장에 갔는데 아마 그때,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김석철 선생이 한국관 건립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 후의 만남과 주고받은 서신들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한국관 건립의 생각은 그때 김석철 선생의 머리에 떠올랐던 거예요.”

아르코예술기록원은 2015년부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전시·공간·운영 기록을 수집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건립과 운영에 참여한 인물들의 경험과 판단을 구술로 기록하는 주제사 구술채록을 이어오고 있다. 채록은 현장 운영과 관리(2019), 설계와 건립(2023), 개관 전후 사정과 운영 전반(2024)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문서만으로는 그 과정의 판단까지 확인되지 않으나, 구술은 그 충위를 채우며 당시의 기록과 함께 읽힌다. 한국관의 30년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것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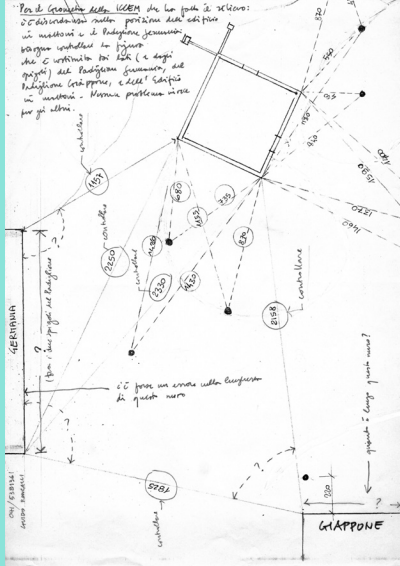


한국관 건립 이전의 부지와 기존 벽돌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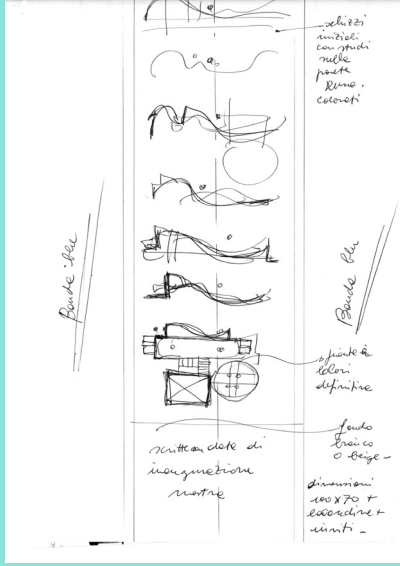
The site before construction and the existing brick building,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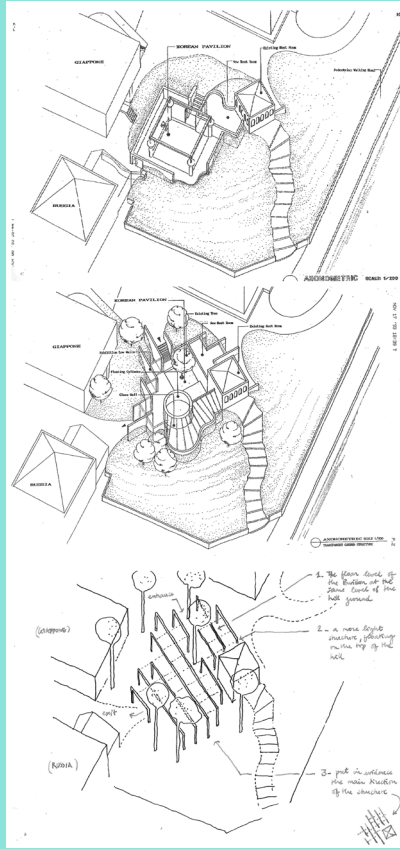
마시모 카치아리 베니스 시장이 환경위원회장에 보낸 문서
Document from Massimo Cacciari, Mayor of Venice, to the Chair of the Environment Committee, 1994.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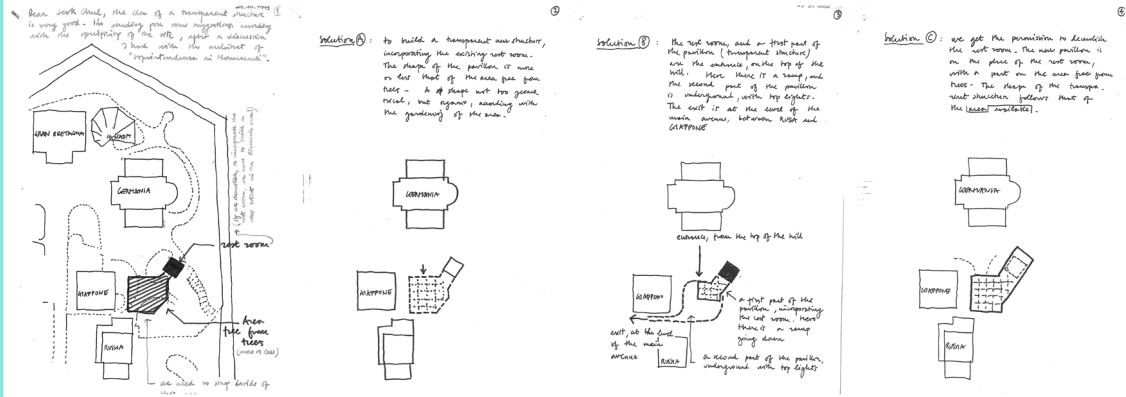
인접 국가관 (독일관·일본관)과의 거리와 기존 벽돌 건물
Distances to the neighbouring German and Japanese pavilions and the existing brick building,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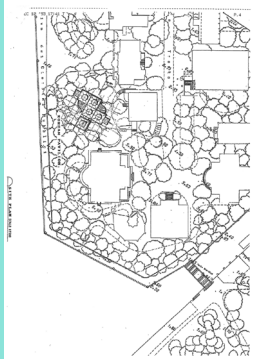
프랑코 만쿠조의 초기 스케치(평면, 입면, 단면)
Preliminary sketches of Franco Mancuso (plan, elevation, section),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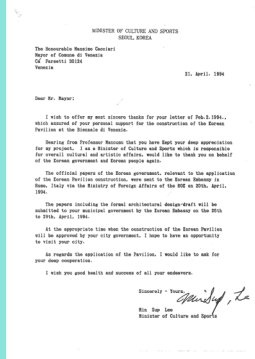
김석철이 프랑코 만쿠조에게 보낸 팩스
Fax from Kim Seok Chul to Franco Mancuso, 1993.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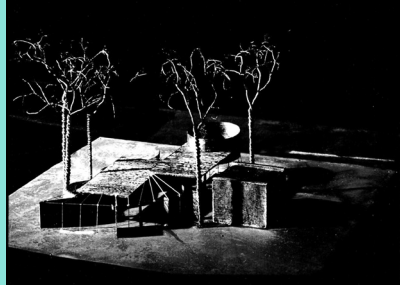
세 가지 해법을 제안한 스케치
Sketch proposing three solutions, 199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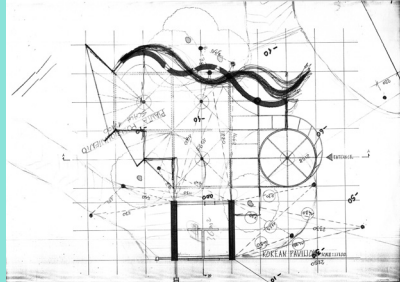
김석철이 프랑코 만쿠조에게 보낸 팩스
Fax from Kim Seok Chul to Franco Mancuso, 1993.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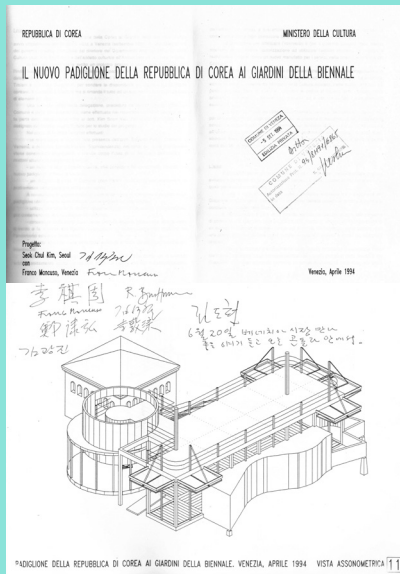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이 마시모 카치아리 베니스 시장에게 보낸 서한
Letter from Lee Min Sup,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to Massimo Cacciari, Mayor of Venice, 1994.4.21.



한국관 초기 모형
Early study model of the Korean Pavilion, 1994.1.



아키타반이 만쿠조·세레나 건축사무소에 보낸 서신에 포함된 도면
Drawing enclosed in a letter from Archibon to Mancuso & Serena Architects, 199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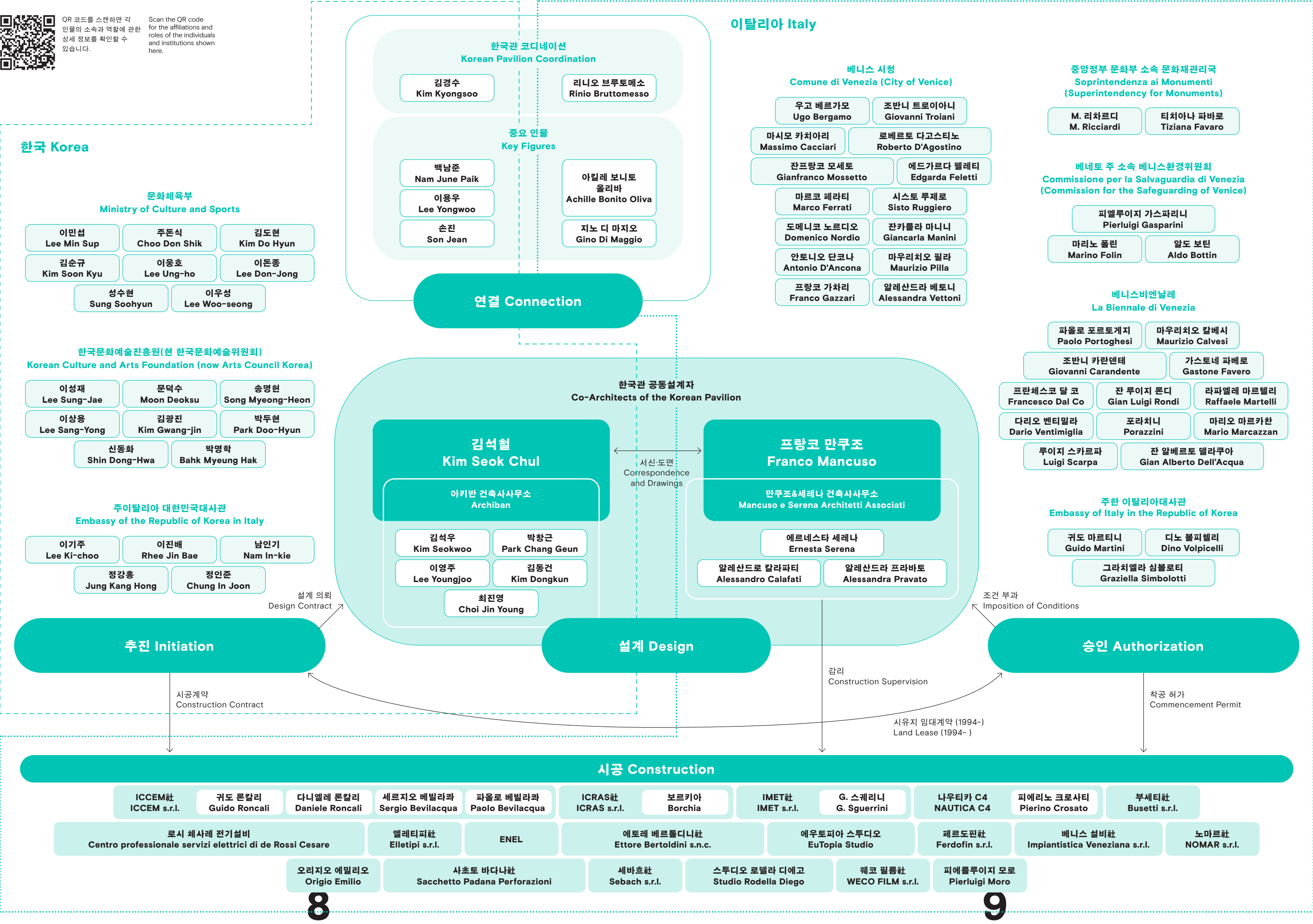
건축설계만 승인신청서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architectural design, 1994.6.20.

한국관 건립 인물·기관 관계도

A Map of People and Institutions in the Making of the Korean Pavi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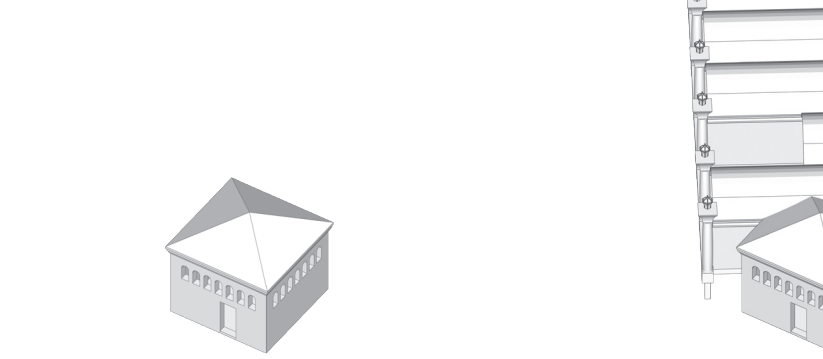
이 관계도는 「2024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축기록물 정리 및 컬렉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연구책임 이종우·전진영)의 인물·기관 색인을 기반으로, 이후 확인된 기록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This map is based on the index of persons and institutions compiled as part of the 2024 Research Project for the Arrangement and Collection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Records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led by Lee Jongwoo and Chun Jinyoung, and incorporates records identified since.



베니스비엔날레의 주요 무대인 자르디니 공원에 소재한 한국관은 우리의 문화와 예술이 세계와 만나는 접점이자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이다. 한국관은 자르디니 공원에 지어진 국가관 중 가장 늦게 지어졌는데 그 건축 과정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한국관의 설계는 한국의 건축가 김석철과 이탈리아 건축가 프랑코 만쿠조(Franco Mancuso)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지 시공업체들의 참여를 통해 베니스비엔날레 창설 100주년인 1995년에 개관하였다. 하지만 어렵게 건축한 한국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0단계 Stage 0



부지의 선정 Site Selection

1993.8.
고고학적 풍광의
가변 파빌리온
Variable Pavilion in
an Archeological
Landscape

#부지 #언덕 #석호 #수목
#기존-벽돌-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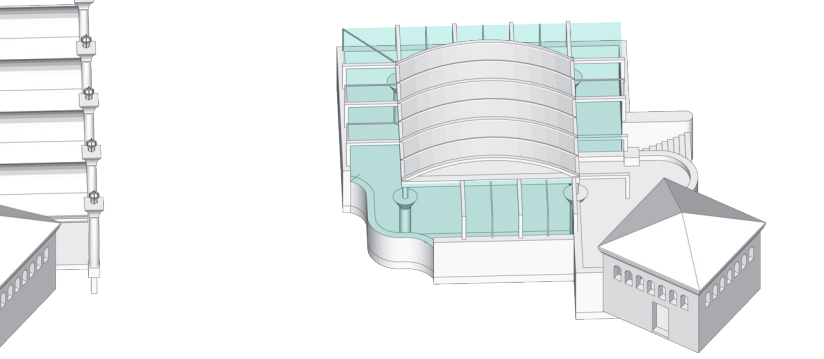
#Site #Hill #Lagoon #Trees
#Existing Brick Building

The hilltop, where an
abandoned brick building
stood among the trees,
is selected as the site for the
Korean Pavilion.

After numerous rounds of consultation and the search for a suitable site, the site selected for the Korean Pavilion was on the southeastern edge of the Giardini. This site occupies the only hill in Venice, formed from the earth and construction debris generated during the park's creation under Napoleonic rule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The hill is densely planted with a variety of tree species introduced when the park was laid out. The site for the Korean Pavilion includes an abandoned brick building constructed in the 1930s, with the Japanese and Russian Pavilions to its northeast and the German Pavilion to its southeast. Situated at the highest elevation point in Venice, the Korean Pavilion site has the distinct advantage of being an unrivaled vantage point from which the historic city—including the lagoon and the San Marco district—can be seen at a single glance.

있었다. 일반적인 미술관들과 다른 독특한 외관과 내부 공간, 평지가 아닌 언덕 경사에 자리 잡은 이유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그렇게 설계한 이유를 다들 궁금해했지만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23년 이루어진 프랑코 만쿠조의 자료기증은 한국관 건축의 배경과 과정들에 대한 재구성의 실마리가 되었다. 건축허가의 어려운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고민한 과정들을 정리하고 단계별 입체 모형으로 재현하는 후속 작업도 이루어졌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두 건축가가 주로 팩스로 주고받았던 초기의 스케치나

1단계 Stage 1



정방향 출과 회랑의 선큰형 파빌리온

1993.10.11
정방향 출과 회랑의
선큰형 파빌리온
Sunken Pavilion with
a Square Hall and a
Surrounding Corridor

#Variable-Structure
#Surrounding-Environment
#Landscape #Colum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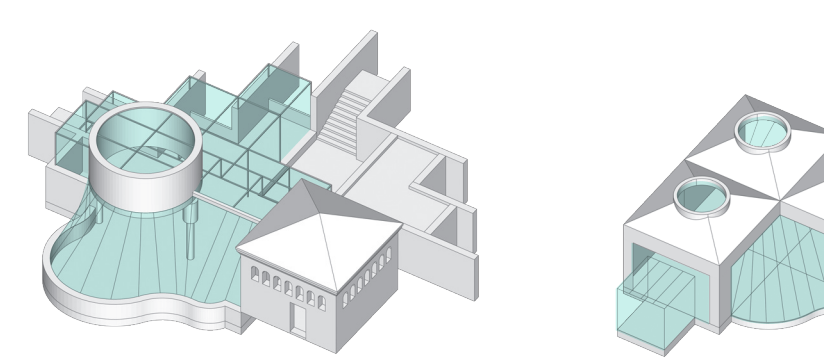
Utilizing twelve columns
permanently installed
adjacent to the existing brick
building, the pavilion is
transformed into an
architectural structure
only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기변형 #주변-환경 #경관
#기동

This was the first design proposal to be organized in the form of architectural drawings, based on the initial consultation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In order to minimize its impact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plan consists of a "fixed component," incorporating the existing brick building formerly used as a restroom, and a "variable component," in which only the columns are permanently erected while the space is configured according to need. The variable component has a rectangular floor plan. Since only the columns remain in place under normal circumstances, it does not obscure the surrounding historical and natural landscape, instead creating a scene reminiscent of the columns of an archeological site. In particular, when viewed from the nearby sea (Giardini) toward the Giardini, the existing brick building and the surrounding landscape remain visible through the columns of the Korean Pavilion.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the floor, walls, and the roof are quickly installed on the twelve columns for use as a "temporary exhibition hall." Artworks can be view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exhibition hall.

수작업 도면들은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 때문에 난해한 경우가 많지만, 같은 시기에 작성된 사진, 문서 등의 기록을 근거로 건축가의 의도나 고민을 읽고 재구성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원 테이블: 7. PAPER TO SPACE, 한국관> 코너에 나열한 단계별 건축계획안의 재현에는 두 건축가가 함께 한 고뇌의 여정이 투사되어 있다. 그 여정을 통해 베니스 시청이나 베네토 주정부, 비엔날레본부 등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한국관의 건축을 실현한 것이다. 가상의 공간 탐사를 통해 한국관의 모습이 변화하는 과정을

3단계 Stage 3



기존 벽돌건물과 좌향을 맞춘 파빌리온

1993.11.12
기존 벽돌건물과
좌향을 맞춘 파빌리온
Pavilion Aligned with
the Orientation of the
Existing Brick Building

#Topography #Trees
#Existing-Brick-Building
#Layout-Axis #Module
#Cylinder-M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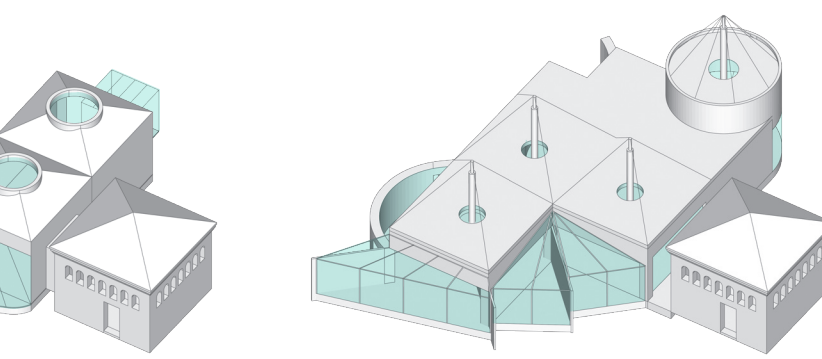
The new design is planned
as an extension of the
orientation and scale of the
existing brick building.

#지형 #수목 #기존-벽돌-건물
#배치축 #모듈 #원통형-매스

The floor of the exhibition space is lowered to a semi-subterranean level, with glass and fabric used as the exterior envelope in pursuit of a sense of lightness and openness. The newly proposed exhibition space, presented in the previous stage as a rectangular floor plan, develops here into a semi-subterranean central space defined by four columns and walls, surrounded by a continuous corridor. Making use of the site's sloping terrain, the exhibition space is lowered by approximately one story below the entrance level so as not to obstruct the surrounding landscape, while the roof is conceived as a variable structure to be installed only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Recognizing the misalignment between the axes of the existing brick building and the new exhibition space, the architects introduced a transitional space defined by a curved wall to mediate between the two. The brick building was also intended to be converted to exhibition-related functions and integrated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new Korean Pavilion. It can also be confirmed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existing pedestrian path crossing the site, entrances to the exhibition space were planned on both the northeast and northwest sides. Securing views toward the lagoon was the design condition established from the outset. Accordingly, a wave-shaped full-width window was introduced at the western end of the square exhibition space, allowing visitors to view the lagoon from within the Korean Pavilion. This proposal nevertheless remained at a conceptual stage, as neither the site's precise topography nor the location of the existing trees had been taken into account.

with expressions of dissatisfaction. It became the subject of criticism for its distinctive exterior and interior spaces, which differed from those of a conventional art museum, as well as its location on a hillside rather than on level ground. Many wondered why it had been designed in this way, yet no clear explanation was provided. Thereafter, the donation of archival materials by Franco Mancuso in 2023 provided the basis for reconstructing the background and design processes of the Korean Pavilion. Follow-up work was also undertaken to document the deliberations involved in satisfying the stringent requirements for obtaining a building permit, and to

4단계 Stage 4



기존 벽돌건물 단위로 증식하는 파빌리온

1993.12.10
기존 벽돌건물 단위로
증식하는 파빌리온
Pavilion Proliferating
through Modules
Derived from the
Existing Brick Building

#Module #Cube #Proliferating
#Trees #Exhibition-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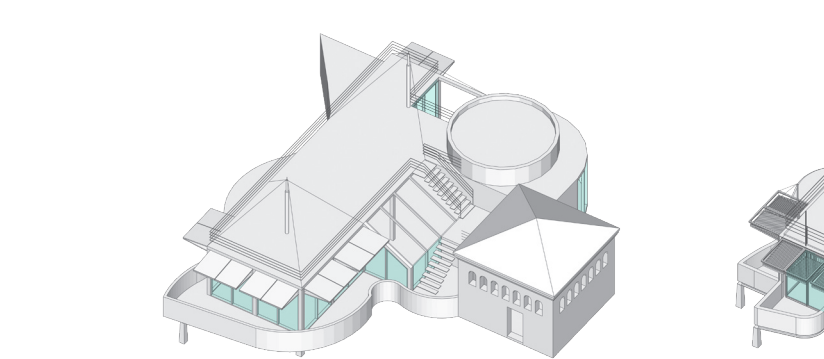
A proliferation system based
on units derived from the
existing brick building was
designed to achieve
consistency in the form of the
building mass.

#모듈 #큐브 #증식 #수목
#전시-공간

Following the Korean delegation's second visit, the City of Venice approved the use of the designated sit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and detailed design guidelines were carried ou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e proposal attached to the letter summarizing the content of those consultations was presented as a single-page floor plan drawn conceptually on top of a site plan showing the surrounding national pavilions. The floor-plan module derived from the existing brick building, first introduced in the previous stage, was given three-dimensional form as a cube, and the Korean Pavilion as a whole was composed through the proliferation of this cube. The size of the exhibition space was maximized while preserving the cube module and avoiding interference with the surrounding protected trees. The gap between the existing brick building and the new construction was reduced to half the length of the basic module, most likely because the trees at the northern edge of the site made it impossible to apply the full module interior. Judging from the floor plan sketch, each cube composing the new structure—the existing brick building—was planned with a gabled roof and a circular skylight at its center.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wave-shaped window facing the lagoon, developed in the previous stage, appears symmetrically, one each on the western and eastern sides.

section reflect the painstaking journey undertaken by the two architects together. It was through that journey—resolving, one by one, the complex requirements imposed by the City of Venice (Comune di Venezia), the Veneto Region(Regione del Veneto), the Venice Biennale(La Biennale di Venezia), and other authorities—that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became possible. We invite you to explore the evolution of the pavilion's design through a virtual spatial experience and to imagine the design solutions you yourself might have arrived at.

6단계 Stage 6



일관된 모듈과 옥상 테라스를 갖춘 파빌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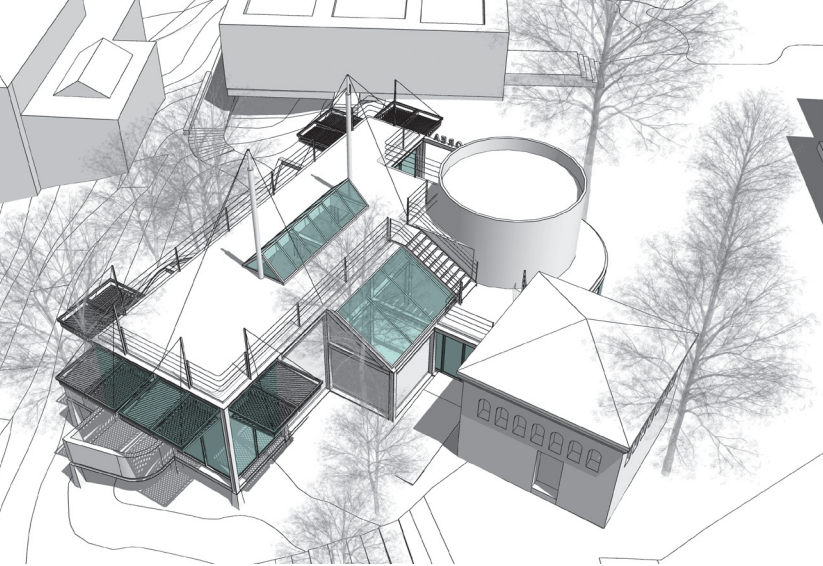
1994.2.11.
일관된 모듈과 옥상
테라스를 갖춘 파빌리온
Pavilion with Consistent
Modules and a Rooftop
Terrace

#Module #Undulating-Wall
#Lagoon #Balcony #Tr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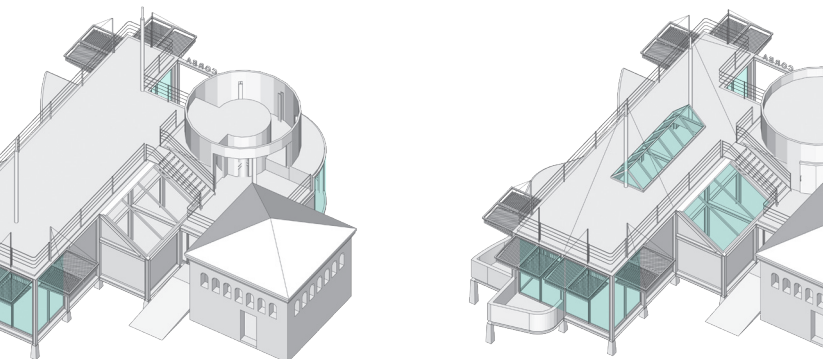
The pavilion's basic
architectural form and spatial
composition are established
through the collaborative work
of the two architects in Seoul.

#모듈 #파동형-외벽 #석호
#발코니 #수목

In response to the stringent requirement of the City of Venice to preserve the site's sloping topography, this proposal departs from the partially below-ground scheme of the previous stage and instead organizes the entire space above ground. This proposal attempts a rearrangement of the building mass while retaining the compositional method of proliferating cubic modules derived from the orientation and scale of the existing brick building. The "floating cylinder," first introduced in Stage 3, is relocated to the eastern end, where its base forms the main entrance, and the wave-shaped glass window planned on the west side to frame views of the lagoon develops into a semi-outdoor space defined by radial lines. The conceptual sketches also suggest that a structural system was considered in which the roof would be suspended by placing an independent column in the center of each cubic module. The undulating wall on the northern side—one of the symbolic sculptural elements of the Korean Pavilion—makes its first appearance. It emerged as a solution for an exterior wall design aimed at maximizing the size of the exhibition space while avoiding the site's protected trees. A model based on this proposal was also used as documentation for a meeting with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 in February 1994.



7단계 Stage 7



주변 조건에 맞춰 건축적 완성도를 높인 파빌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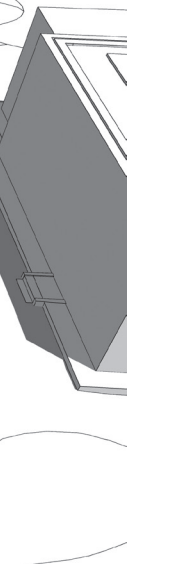
1994.4.4
주변 조건에 맞춰 건축적
완성도를 높인 파빌리온
(건축허가신청 제출안)
Pavilion with
Architecturally Resolved
Design Adapted to Site
Conditions (Building
Permit Application
Submission)

#Undulating-Wall #Trees
#Staircase #Shutters
#Deureogeolgaemun
#Building-Permit

The design proposal for the
building permit application is
drawn up to reflect the final
consultations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관개형-외벽 #수목 #계단
#맞춤형-들어갈계문 #건축허가

This is the proposal submitted to the City of Venice as part of the application for the Korean Pavilion's building permit and represents the architectural resolution of the physical and legal requirements consolidated through numerous rounds of consultation. The viewing balcony on the west side is adjusted into a form that splits in two directions in order to avoid disturbing the protected tree newly discovered in the previous stage. The end of the undulating wall on the north side is likewise adjusted so as not to encroach upon the existing pedestrian path between the Russian and Japanese Pavilions.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the location of the restroom is moved from the end of the undulating wall to the upper portion of the cylinder mass on the east side, and a spiral staircase connecting to the ground floor is placed at the center of the cylinder, so that access to the rooftop terrace would pass through the interior of the Korean Pavilion. Wood is used for both the undulating wall and the external shutters in order to harmonize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Giardini. The wooden shutters, which also function as a security device, are designed as a suspended structure operable by electric motor—intended to bring a modern mechanical aesthetic to the traditional image of the Korean architectural element known as the deureogeolgaemun, a door that is lifted and suspended in an open position. The design statement describes the progress of the consultations with the various authorities involved in the Korean Pavilion's construction and the architectural solutions developed in response to their requirements, making it an invaluable source to understanding the design.



8단계 Stage 8



건물 위치가 조정된 파빌리온 (실제로 지어진 최종안)

1994.12.5
건물 위치가 조정된
파빌리온 (실제로 지어진
최종안)
Pavilion with Revised
Building Position (Final
Built Design)

#Construction-Drawings
#Skylight-Addition #Final-
Design #Relpositi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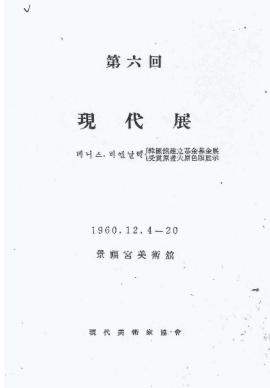
Adjustments to the building's
position to accommodate
protected trees, together with
the addition of skylights, are
reflected in the final design.

#실시설계 #현황차우 #완공
#위치이동

These working drawings were prepared for construction following the groundbreaking ceremony of the Korean Pavilion on November 8, 1994 and comprise architectural, structural, mechanical, and electrical drawings. Shortly after construction began, it was discovered that one of the protected trees conflicted with the proposed building, and these drawings were produced after the two architects had resolved their disagreement over how to address the issue. To accommodate the protected tree, the position of the new building was shifted, resulting in a change to the way it connects to the existing brick building. Another departure from the previous proposal is the introduction of skylights into the floor of the rooftop terrace, with the rooftop posts moved to either side in order to achieve a different exterior appearance. The rooftop terrace had been planned from the earliest stages of the design as a space for exhibitions and events, but the installation of the skylights—at odds with that concept—reduced the usability of the rooftop. Because the construction drawings, prepared according to Korean standards for materials, specifications, processes, and construction methods, could not be used on-site, F. Mancuso redrew them as construction drawings for on-site use. The Korean Pavilion was completed in May 1995.

1960

1960.12.4-20
한국관 건립기금 조성 기획전,
제6회 현대미술가협회전
Fundraising Exhibiti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The
6th Contemporary Artists
Association Exhibition
(6th Hyundai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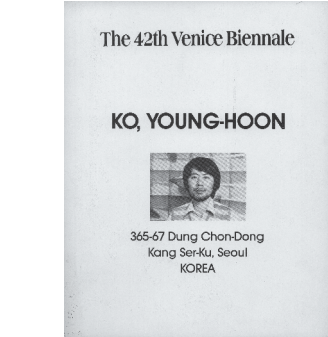


«제6회 현대전» 리플렛,
역사보 컬렉션
Leaflet for the 6th Hyundai
Art Exhibition, Park Seo-Bo
Collection, 1960

1962.4-10
한국판화협회 이항성의 판화
15점 송부와 비엔날레 참가
절차 문의
Fifteen Prints Sent by Lee
Hang-sung of the Korean
Printmakers' Association
and Inquiry about Biennale
Participation Procedures

1963.6-1964.2
대한민국 정부의 제32회
비엔날레 참가 추진과 공간
부족 회신
Korean Government's Bid
for the 32nd Biennale and
the Biennale's Reply Citing a
Shortage of Space

1965.7-1966.2
제33회 비엔날레 참가
재추진과 중앙관 공간 부족
회신
Renewed Bid for
Participation in the 33rd
Biennale and Reply Citing a
Shortage of Space



고영훈 전시 리플렛
Leaflet for Ko Young-hoon,
1966



QR을 스캔하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연표로 상세한 비연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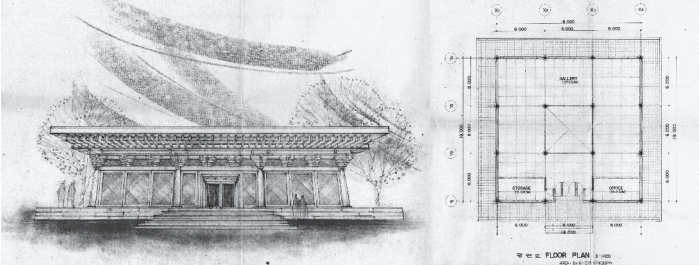
Scan the QR code to view
the detailed chronology of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이 연표는 「2024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축기록물 정리 및
철학적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연구책임
이종우·전진영)의 건립
연보를 기반으로, 이후
확인된 기록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This chronology is based
on the construction timeline
compiled as part of the
2024 Research Project
for the Arrangement and
Collection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Records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led by Lee
Jongwoo and Chun Jinyoung,
and incorporates records
identified since.

1985~1992

1986
문화공보부와 미술계의 독립
한국관 건립 논의 시작
Beginning of Discussions on
the Korean Pavilion withi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and the Arts
Community



오기수 작 한국관 설계 스케치,
베니스비엔날레 현대미술
역사아카이브
Design sketch for the Korean
Pavilion by architect Oh Ki-
soo, Archivio Storico della
Biennale di Venezia, 1987

1985.7.18-9.29
제3회 국제건축전 「베니스
계획안(Progetto Venezia)」
공모 김문덕·서병건·홍건식
팀의 한국 첫 출품과 입선
First Korean Entry and
Selection in the Progetto
Venezia Competition at the
3rd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1986.11.27
하종현 한국미술협회장의 감사
서한과 한국관 설치 희망 전달
Letter of Appreciation from
Ha Chong-hyun, President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Conveying Hope
for a Korean Pavilion

1987.6.24
이남기 대사의 한국관 건립계획
제시와 설계도 전달
Ambassador Lee Nam-
ki's Written Proposal for an
Independent Korean Pavilion
and Delivery of the Drawings

1988.4.21
한국미술협회의 수정 한국관
건립계획안 송부
Submission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s
Revised Pavilion Plan for the
Korean Pavilion

1986.9
한국미술협회의 한국관 부지
확보와 예산 지원 건의
Korean Fine Arts
Association's Petition to the
Government for a Pavilion
Site and Budget

1987.7
문화공보부의 한국관 설치
가능성과 타당성 종합검토 지시
Ministry's Directive for a
Comprehensive Feasibility
Review of the Pavilion

1987.8.18
김석철의 한국관 지하 파빌리온
계획안 구체화
Kim Seok Chul's Refinement
of the Underground Korean
Pavilion Plan

1987.12.18
김석규 대사-카셀라티 시장
연담과 가용 부지 부족 확인
Ambassador Kim Seok-
kyu's Meeting with Mayor
Casellati and Confirmation of
a Shortage of Available Land

1988.11.27
하종현 한국미술협회장의 감사
서한과 한국관 설치 희망 전달
Letter of Appreciation from
Ha Chong-hyun, President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Conveying Hope
for a Korean Pavilion

1989.12.18
김석규 대사-카셀라티 시장
연담과 가용 부지 부족 확인
Ambassador Kim Seok-
kyu's Meeting with Mayor
Casellati and Confirmation of
a Shortage of Available Land

1989.12.18
김석규 대사-카셀라티 시장
연담과 가용 부지 부족 확인
Ambassador Kim Seok-
kyu's Meeting with Mayor
Casellati and Confirmation of
a Shortage of Available Land

1989.12.18
김석규 대사-카셀라티 시장
연담과 가용 부지 부족 확인
Ambassador Kim Seok-
kyu's Meeting with Mayor
Casellati and Confirmation of
a Shortage of Available Land

1989.12.18
김석규 대사-카셀라티 시장
연담과 가용 부지 부족 확인
Ambassador Kim Seok-
kyu's Meeting with Mayor
Casellati and Confirmation of
a Shortage of Available Land

1989.12.18
김석규 대사-카셀라티 시장
연담과 가용 부지 부족 확인
Ambassador Kim Seok-
kyu's Meeting with Mayor
Casellati and Confirmation of
a Shortage of Available Land

1989.12.18
김석규 대사-카셀라티 시장
연담과 가용 부지 부족 확인
Ambassador Kim Seok-
kyu's Meeting with Mayor
Casellati and Confirmation of
a Shortage of Available Land

1989.12.18
김석규 대사-카셀라티 시장
연담과 가용 부지 부족 확인
Ambassador Kim Seok-
kyu's Meeting with Mayor
Casellati and Confirmation of
a Shortage of Available Land

1989.12.18
김석규 대사-카셀라티 시장
연담과 가용 부지 부족 확인
Ambassador Kim Seok-
kyu's Meeting with Mayor
Casellati and Confirmation of
a Shortage of Available Land

1989.12.18
김석규 대사-카셀라티 시장
연담과 가용 부지 부족 확인
Ambassador Kim Seok-
kyu's Meeting with Mayor
Casellati and Confirmation of
a Shortage of Available Land

1989.12.18
김석규 대사-카셀라티 시장
연담과 가용 부지 부족 확인
Ambassador Kim Seok-
kyu's Meeting with Mayor
Casellati and Confirmation of
a Shortage of Available Land

1993

1993.8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 제45회
비엔날레 총감독의 한국관 지하
파빌리온안 긍정 평가
Favorable Assessment of the
Underground Korean Pavilion
Plan by Achille Bonito Olivi,
Director of the 45th Biennale

1993.8.18
김석철의 한국관 지하 파빌리온
계획안 구체화
Kim Seok Chul's Refinement
of the Underground Korean
Pavilion Plan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

1993.8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 제45회
비엔날레 총감독의 한국관 지하
파빌리온안 긍정 평가
Favorable Assessment of the
Underground Korean Pavilion
Plan by Achille Bonito Olivi,
Director of the 45th Biennale

1993.8.18
김석철의 한국관 지하 파빌리온
계획안 구체화
Kim Seok Chul's Refinement
of the Underground Korean
Pavilion Plan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7.8 공동설계시작

1993.8.20
백남준의 김영삼 대통령 앞
한국관 건립 건의
Nam June Paik's Appeal to
the President Kim Young-sam
to Construct the Korean
Pavilion

1993.10.18
지하안에서 지상 파빌리온
안으로의 한국관 설계 전환
Shift in the Korean Pavilion's
Design from an Underground
Scheme to an Above-
ground Pavillion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3.12.16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

1994.2.4
공동설계자 만쿠조의
한국관 건립 계획
F. Mancuso's Appointment as
Goodwill Cultural Envoy

1994.3
한국관 건립계획 보고: 한국관
361.21m²와 공공휴식공간
88.33m² 명시
Report on the Korean
Pavilion Construction Plan:
Specification of 361.21 m² for
the Pavilion and 88.33 m² for
a Public Rest Area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

1994.2.4
공동설계자 만쿠조의
한국관 건립 계획
F. Mancuso's Appointment as
Goodwill Cultural Envoy

1994.3
한국관 건립계획 보고: 한국관
361.21m²와 공공휴식공간
88.33m² 명시
Report on the Korean
Pavilion Construction Plan:
Specification of 361.21 m² for
the Pavilion and 88.33 m² for
a Public Rest Area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

1994.2.4
공동설계자 만쿠조의
한국관 건립 계획
F. Mancuso's Appointment as
Goodwill Cultural Envoy

1994.3
한국관 건립계획 보고: 한국관
361.21m²와 공공휴식공간
88.33m² 명시
Report on the Korean
Pavilion Construction Plan:
Specification of 361.21 m² for
the Pavilion and 88.33 m² for
a Public Rest Area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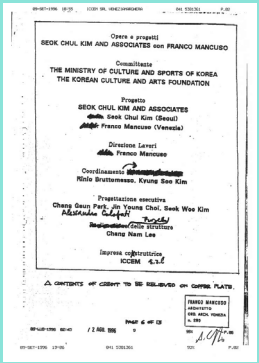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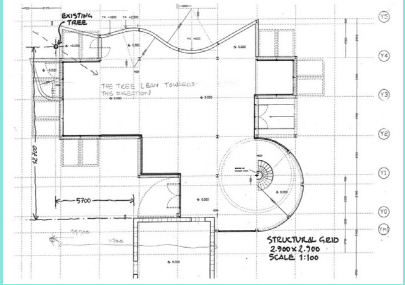
1994.3.18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의
한국관 건립 추진 승인과 정부
공식사업화
Approval of the Korean
Pavilion Project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Lee Min Sup's and
Its Adoption as an Official
Governmen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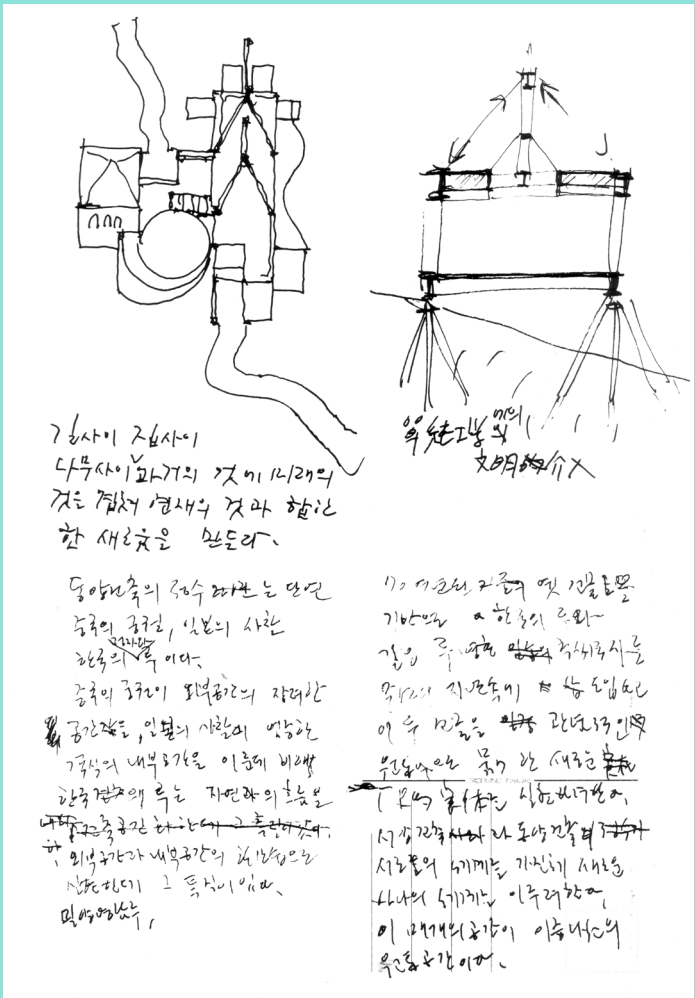
마시모 카치아리 베니스 시장과의
면담
Meeting with Massimo Cacciari,
Mayor of Venice, 1994.6.20.
(마시모 카치아리, 프랑코 만쿠조,
김석철, 정강홍, 이기주, 김도현, 손진,
이돈중, 리니오 브루토메소 참석)



한국관 준공기념명패
크레딧 문안
Credit text for the
commemorative plaque of the
Korean Pavilion, 1996.9.9



기존 3,000mm 모듈 도면
Drawing of the existing
3,000mm module, 1994.11.29.



김석철이 그린 한국관 스케치
Sketch of the Korean Pavilion by
Kim Seok Chul, 2000



Il plastico del padiglione coreano ai Giardini della Biennale

CULTURA e affari all'ombra del Padiglione. E' stato presentato ieri in Comune — alla presenza del ministro coreano della Cultura e dello Sport Lin Min Sup, del sindaco Massimo Cacciari, del segretario generale della Biennale Raffaele Martelli e di una quantità incredibile di giornalisti e operatori televisivi sudcoreani — il nuovo padiglione che la Corea Sud costruirà ai Giardini di Castello, in vista del Centenario di Ca' Giustinian. I lavori dell'opera — che sarà smontabile (visto il permesso teoricamente provvisorio) e costruita su palafitte, senza pregiudicare l'area verde in cui verrà inserita — sono già iniziati ieri e i progetti sono in mostra allo Spazio Olive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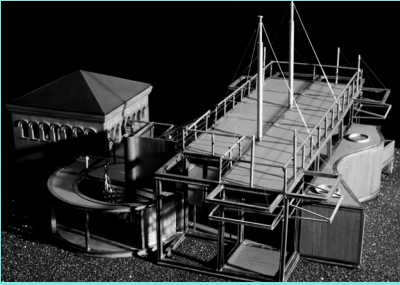
Essa sarà realizzata dall'architetto Seok Chul Kim e dal suo collega di architettura Franco Mancuso nello spazio ove oggi sorgono i servizi igienici di tipo ottocentesco, tra il padiglione tedesco e quello giapponese. La spesa prevista per la costruzione è di un miliardo e 400 milioni.

«Vogliamo utilizzare il padiglione», ha detto il ministro coreano, «anche per manifestazioni che favoriscano una reale integrazione tra il nostro Paese e la Corea del Nord, e l'arte e la cultura rappresentano un'ottima base di partenza».

«Per la Corea del Sud, paese in grande espansione economica, questa è la prima uscita europea», ha spiegato Cacciari, «e ha scelto Venezia. Logico che poi pensi anche a investire qui, non solo attraverso il turismo e il commercio. Imprese coreane potrebbero intervenire anche nella riqualificazione di Marghera».

Per questo il Comune ha detto sì alla Corea — che garantisce un'attività continuativa e chiedeva il padiglione dall'86 — scontentando molti altri pretendenti, come il Portogallo, l'Argentina, il Cile. Questi come altri paesi — dovranno aspettare l'ampliamento dei Giardini verso est, negli spazi ora occupati dai cantieri dell'Activ, perché nell'area attuale ormai non c'è più posto.

한국 기념 전시를 보도한 현지
신문 기사
Local press coverage of the
groundbreaking
commemorative exhibition,
1994.11.9.



학공 기념 전시에 출품된
조립식 모형
Sectional model exhibited
at the groundbreaking
commemorative exhibition,
1994.11.8.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방문한
프랑코 만쿠조
Franco Mancuso visiting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1995.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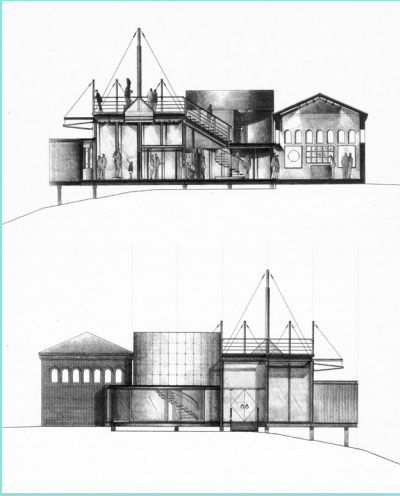
한국관 개관식
Opening ceremony of the
Korean Pavilion, 1995.6.7.



한국관 추가공사
Additional construction work
on the Korean Pavilion, 1996.9.



건설 중인 한국관
The Korean Pavilion under
construction, 1995



한국관 스케치
Sketch of the Korean Pavilion,
1994.12.



'COREA' 현판 제작 견적
의뢰 서신
Letter requesting a
quotation for the 'COREA'
sign lettering, 1995.05.17

Thematic Oral History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 Scan the QR code to access
the oral history videos and
transcripts on DA-Arts.



Interviewees: Franco Mancuso, Ernesta Serena
Interviewer: Chun Jinyoung

* Excerpted from the oral history transcript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II: The Construction
and Remodelling of the Korean Pavilion*,
recorded in 2023 under the Oral History
Project o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Arts.

The Architects' Memories

Contacts with Local Figures and the Preconditions for the Building Permit

MANCUSO "...we found a formula for this. The formula was, 'We grant you a temporary concession to put up a building, on condition that it be a lightweight building and also demountable, so that if, in eight years, we want to take back possession of the property, you must demolish it and carry it away.'"

MANCUSO "Second issue. The trees are not to be touched—build a pavilion, but do not touch the trees. Careful: 'The trees' does not mean only the tree. It means the roots as well. These are trees more than a century old in the Giardini—these trees here. So a pavilion had to be built that would touch neither the trees nor the roots."

CHUN "This is like, let's say, a mathematics question."

MANCUSO "There it is—the problem was to solve that mathematics problem."

MANCUSO "The City's principal interlocutor was Mayor Massimo Cacciari who said: 'Good—this way at least we get to know Korea.' He also said, 'Make sure it is the pavilion of Korea—not North or South Korea, but Korea.'"

Kim Kyong Soo, Kim Seok Chul and Franco Mancuso: How They Met

MANCUSO "...The Architecture Biennale was open, so I went there with them. We went to see the Biennale, and I gave them a few pointers, but they knew the places they wanted to see. ... We went to the Biennale and ...perhaps at that moment the idea came to Kim Seok Chul that it might be interesting to have a pavilion. We didn't speak about it then, but in the meetings and in the letters we exchanged afterward, this idea of a Korean pavilion began to take shape in Kim Seok Chul's head, in his mind."

The Collaborative Design Process

MANCUSO "A typically Italian and Venetian mentality, that is: be careful, don't touch, pay attention to what is pre-existing—the greenery, the trees, et cetera, et cetera. Italian, and Venetian in particular. But this was something Kim Seok Chul had not yet absorbed, let's say, since he knew nothing about Italy from this point of view."

MANCUSO "Let's not make—let's not make—a container. 'Entrance, exit.' Let's make a transparent building, transparent, because San Marco is right here."

MANCUSO "I can offer this as a general observation: there was very little time, and this was very useful. If we had had ten years, we would have started arguing...Very favourable—little time available."

First Discussions and Attempts Toward the Korean Pavilion

MANCUSO "...So this thing can be done. We would like to do this, and naturally we would like to do it with you as a collaborator on the project.' So...that was the beginning."

MANCUSO "...Because the problem was...a new building had to be put up, and the first answers were rather negative. In the sense that the first answer, from the City of Venice too, which owns the site, was: 'Gladly, but there is no room, there are no areas available.' The Biennale itself said: 'Gladly, but there are no areas available.'"

The Architectural Meaning of the Pavilion and Mancuso's Philosophy

MANCUSO "Sustainability. So when they built the German pavilion, for instance, it didn't exist...No pavilion has this sensibility. So the Korean one is new in that respect as well."

MANCUSO "So these are the right approaches: that is, every site, every place offers you potential, possibilities and potential that, as an architect, you must discover and bring into evidence, and which will then characterise your architecture."

MANCUSO "In this case, the pavilion we made ... [There was] one point on which Seok Chul seemed to agree: a structure whose technology is seen, very clearly perceptible."

CHUN "It hides nothing."

MANCUSO "It hides nothing. You can see everything, because that is part of the language of the beautiful that people see. Window panels that move."

CHUN "So, an honest architecture. Without masking itself."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Giardini and the Choice of the Site

MANCUSO "Because here the ground rises; it's a bit like this. It is the only hill there is in Venice. Why? When they demolished that whole quarter, all the demolition material was deposited here. There was a small building, but it wasn't in use."

MANCUSO "Kim Seok Chul wasn't entirely in agreement. It wasn't...so I said, 'But look, if we want Korea to have the pavilion, this is the only possibility, because there isn't any more ...there is no more room.'"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is the last national pavilion to have been built in the Giardini, the Biennale's main exhibition venue. The pavilion was designed by architect Kim Seok Chul in collaboration with Professor Franco Mancuso of the IUAV University of Venice, constructed by local firms, and completed in 1995, the centenary year of the Venice Biennal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vilion was a national undertaking that encompassed a remarkably wide range of issues, from the initial planning stages and consultations with local authorities to secure permits and approvals, to the technical solutions involved in architectural design and construction. Yet because the pavilion is located in a distant foreign country, and because the consultation records, permit documentation, and related materials were not preserved in South Korea*, more than thirty years passed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s of how the pavilion came into being. What was known about its construction was limited to the account conveyed through a single source—architect Kim Seok Chul himself. Following his death in 2016, however, even the materials he had retained were lost, bring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Pavilion's construction to the brink of disappearing altogether.

A turning point came in 2019. Officials from Arts Council Korea (hereafter, ARKO) visited Mancuso e Serena Architetti Associati in Venice,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architectural materials relating to the Korean Pavilion, and cautiously requested that they be donated. Professor Mancuso accepted their request. He had meticulously preserved every document relating to the Korean Pavilion, from the initial planning stages through its completion and beyond, believing that he would one day return them to the Korean people, the rightful owners of the pavilion. It is said that, upon witnessing the sincerity of the ARKO officials who had come to meet him, he decided to make the donation. After several procedural stages, the entire collection of Mancuso's architectural materials relating to the Korean Pavilion was to be transferred to the ARKO Arts Archive in Seoul by 2023, four years later.

In the autumn of 2023, when Professor Franco Mancuso came to Korea to speak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KO promptly began planning a roundtable discussion on the architecture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along with an oral history recording session with Professor Mancuso and his wife. Having maintained a friendship with the Mancusos for more than twenty years, I was invited to facilitate both the roundtable and the oral history recording session, and it was through this work that I became involved in ARKO's project to document the architectural history of the Korean Pavilion. The current project—*PAPER TO SPACE, Padiglione Corea* (One Table 7)—is a continuation of that same endeavor.

At the roundtable held on October 25, 2023, at the ARKO Art Center in Daehangno, Seoul, Mr. and Mrs. Mancuso discussed the history of the Korean Pavilion's construction and the possibilities for its future remodeling. Furthermore, the Mancusos' calm and measured explanation dispelled concerns held by some in Korea regarding the pavilion's legal status, specifically, the suspicion that it remained an unauthorized structure. The panel discussion also addressed participants' experiences of exhibiting at the Korean Pavilion and proposals for future use. Among the roundtable's principal outcomes was the emergence of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need to develop exhibition strategies grounded in the pavilion's site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The day after the roundtable, the Mancusos visited the ARKO Arts Archive to inspect the storage and preservation of the donated materials, after which they signed the agreement formally completing the donation. The following day, October 27, a filmed oral history session with the Mancusos took place at the ARKO Arts Theater in Daehangno. The interview, which I conducted in Italian, was attended by Professor Kim Kyongsoo, Professor Emeritus at Myongji University, a mutual acquaintance and the link between Kim Seok Chul and Professor Mancuso. Part I of the oral history focused on Professor Mancuso's account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centering on his collaboration with Kim Seok Chul. Part II took the form of a dialogue primarily with Arch. Serena, exploring possible alternatives for the pavilion's remodeling. After considerable time and effort spent compiling the content of these conversations into publication and video materials, the editing of both the oral history volume—in Korean and Italian—and the accompanying video materials was completed by the end of 2025.

In June 2024, a research team formed to archive the materials donated by Professor Franco Mancuso,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Lee Jongwoo of Myongji University, a specialist in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tectural history. The team began identifying the contents of the approximately four thousand items in the collection,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 documents, and reclassifying and organizing them according to the ARKO Arts Archive's classification system. The donated materials encompass a remarkably diverse range of content—including personal correspondence, official documents, conceptual sketches, architectural drawings, contracts and construction specifications relating to local firms, and photographs of the site and building—in a combination of Korean, Italian, and English. Even the external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s proposal review were not entirely confident that such an undertaking could be successfully completed.

Nevertheless, after more than six months of painstaking work, often carried out late into the night, the research team succeeded in organizing this vast body of material. The inventory of the collection of donated materials, prepared in Korean and Italian together with descriptions of individual items, is now publicly accessible through the ARKO Arts Archive website. This represents a significant achievement, establishing a documentary foundation that can be shared with relevant institutions in Venice and serve as a resource for future discussions concerning the Korean Pavilion.

In parallel with the archiving project, the ARKO Arts Archive carried out an oral history recording project in the summer of 2024, targeting key figures in Korea who had been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Professor Lee Inbeom, Professor Emeritus at Sangmyung University, who directed the research, conducted interviews primarily with figures from the art world and cultural administration, while I was responsible for recording the oral histories of members of the architectural community. In particular, the testimony of Kim Seokwoo, who had worked alongside Kim Seok Chul in preparing the pavilion's design proposals, proved invaluable in reconstructing the process by which the architectural concept of the Korean Pavilion evolved. Through the archiving of the materials donated by Professor Franco Mancuso and the oral testimony of those involved in the pavilion's construction, previously unknown dimensions of the Korean Pavilion's history came to light. As the pieces of the larger mosaic that is the story of the Korean Pavilion's construction fell into place, it became possible to move beyond a historical account that had long relied almost exclusively on Kim Seok Chul's own narrative. The sequence of events,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and the respective roles of those involved could finally be understood with greater clarity.

The centerpiece of the Korean Pavilion story that the ARKO Arts Archive is unveiling through One Table 7 is *Tracing the Korean Pavilion in Venice*, a stage-by-stage reconstruction of the pavilion's evolving form through 3D modeling. More specifically, it reconstructs in three-dimensional form the process by which, more than thirty years ago, two architects developed the pavilion's design through the exchange of hand-drawn sketches, drawings, and blueprints, communicated primarily by fax. Until April 1994, when the pavilion's architectural concept was consolidated into a complete set of drawings,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architects took the form of an ongoing exchange of conceptual sketches and design drawings. The successive design schemes produced in the course of consultations with the relevant local authorities represent not only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 between the two architects' respective architectural philosophies and sensibilities, but also proposals intend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no fewer than five permitting authorities while resolving the technical challenges relating to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from rough sketches and drawings alone would have been impossible, but the materials donated by Mr. and Mrs. Mancuso include letters and other documents recording the deliberations at each stage of the design process, and these proved indispensable as input for generating the 3D images. One might even say that these stage-by-stage three-dimensional models capture two architects, more than thirty years ago, struggling to arrive at their own "particular solution" that would satisfy the conditions for a building permit that must at times have seemed almost impossible to obtain.

Although the materials donated by Professor Franco Mancuso have already been made public, they remain difficult to interpret even for specialists in architecture, owing to a range of factors, including linguistic barriers, the complexity of the local conditions, the regulatory and permitting systems, and differing perceptions of landscape value. The achievement of this research project, which presents the result of combining various elements of input in the form of the building's final architectural form, is a valuable contribution to Korea's cultural and artistic community. It is hoped that the confusion and disagreements that arose during a period when accurate knowledge of the Korean Pavilion's construction process was unavailable will be resolved through this research project, and that it will serve as an occasion for pooling wisdom in settling a desirable vision for the pavilion's future.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given the marked difference in perspective between the art world and the architectural community regarding the architectural value of the Korean Pavilion. For this reason,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project are anticipated with great interest.

This research project has also held deep personal significance for me. Having found myself unexpectedly drawn into the effort to document the architectural history of the Korean Pavilion, I consider its greatest reward to be the satisfaction of having brought my personal connections with Professor Mancuso and Kim Seok Chul to a meaningful culmination through scholarly research. I am deeply grateful to all the members of the research team, who shared my commitment to the significance of this project and worked alongside me, as well as to the staff of ARKO, whose wholehearted support made such a rewarding research environment possible.

*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references to Korea refer to South Korea.



In June 1995, the centenary year of the Venice Biennale, the Korean Pavilion opened as the last national pavilion to be newly built in the Giardini. Since its opening, the building has been read in isolation from its surroundings, and it now stands before the practical question of renovation and expansion. As the thirtieth anniversary and these discussions converged, forums, articles, and studies followed, and with heightened attention, records that had lain scattered began to surface one by one. The appearance of these records became an event that made a familiar building visible anew. Arts Council Korea built the Korean Pavilion, has operated its exhibitions and spaces since the opening, and now collects the records of that entire process. To build, on one's own shelves, the records of the house one built — this is how the Korean Pavilion Collection began. In 2023, when co-architect Franco Mancuso donated the complete body of his design records of the Korean Pavilion to the ARKO Arts Archive, the records showing how the building took shape at last entered those shelves.

The Korean Pavilion on Paper

Before it was built in glass and metal, the Korean Pavilion was first built on paper. In 1960, the Contemporary Artists Association held the *6th Hyundai Exhibition* to raise funds for the construction of a Korean pavilion, and in 1987,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submitted drawings for a permanent stone pavilion to the Biennale. In 1992, a plan to receive and remodel the former East German Pavilion was discussed in letters. These unrealized plans remain in drawings and correspondence as possibilities of what the Korean Pavilion might have become. The design by Kim Seok Chul and Franco Mancuso, begun in earnest in 1993, likewise started on paper. Amid the faxes and sketches that traveled between Seoul and Venice, and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recording permit conditions and design revisions, an agreement grew; the agreement took form, and finally reached a single space on the hill of the Giardini.

The First Miracle: A Building Was Built

The site in the Giardini was not given as a gift.¹ The Giardini's only hilled terrain and its existing trees were to be preserved; the surrounding views were not to be obstructed. The hard-won site was a place where restrictions overlapped. The design of the Korean Pavilion is understood when read not as a “building” but as a “place.” The transparent glass-wrapped walls and the floor lifted off the ground were the solutions the two architects arrived at in response to these conditions.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two designers was translated once more into the administrative and architectural language of Venice, becoming the documents that persuaded the City of Venice, the Veneto Region, and the Biennale. In 1994, Massimo Cacciari, mayor of Venice, called the building of the Korean Pavilion a “small miracle.”² The phrase points to the achievement of a national pavilion rising on a seemingly impossible site, while also recalling that this achievement was the result of constraint, negotiation, and compromise. Like Kim Seok Chul's note describing the building permit as “a permit

for architecture to become a member of the urban community,”³ the surviving documents are a record of the consultation and adjustment through which a work of architecture earned its place in an unfamiliar city.

The Second Miracle: The Records Arrived

The records of decisions were left by institutions; the records of design were left by one person. The papers produced throughout the design process crossed borders without being scattered and arrived in Korea, and Mancuso's donation came to be called the “second miracle” surrounding the Korean Pavilion.⁴ Long consultations went into locating the materials and carrying them through to donation, and once the records were in, there followed the work of arranging and connecting materials left in different languages and formats. Gaps between the records were filled with oral histories capturing the contexts of decisions and the experiences of those involved. In the process of placing documents and memories side by side, letting each illuminate the other, the scattered time of the design at last became a single archive.

The Korean Pavilion on the Table

The records thus gathered are placed once more on the tables of a reading room. Beginning with the pre-1993 conceptions for a pavilion, the exhibition leads through records produced in Korea and in Italy. Past the Architects' Table, where sketches and drawing sets can be leafed through by hand, and past the oral history videos, visitors reach the panels from the 1994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groundbreaking — which show design intentions and spatial qualities that had not fully come to light in Korea — and a chronology tracing the entire course of the pavilion's construction. At the center, *Tracing the Korean Pavilion in Venice* rebuilds as 3D models the plans that changed across eight stages. The research team⁵ read the archive by following the erased lines rather than the drawn ones; where the drawings alone could not confirm a detail, they drew inferences from related records, stating both the grounds and the limits of those inferences. This was not a work of restoring the completed building to its original form, but of revealing how a work of architecture takes shape through countless choices, revisions, and consultations. Here the unbuilt plans acquire spatial form for the first time, and come face to face with the many design possibilities that remained behind the completed Korean Pavilion.

Records Are Reread

Archiving does not end with the preservation of what has passed. It extends to connecting records, questioning their gaps, and adding grounds to the inferences and judgments made along the way, setting these down as records in turn. This exhibition presents as an archive the very process of collecting, arranging, and researching records in this manner. Thirty years ago, paper became space; space became records once again; and these records will one day become paper for the Korean Pavilion. Miracles do not repeat themselves, but records are reread.

The Korean Pavilion Collection, Venice Biennale

Extent 2,090 items (17,383 components)
Korean Pavilion Exhibitions: 852 items (11,014 components)
Korean Pavilion Operations: 197 items (2,593 components)
Mancuso e Serena Architetti Associati: 687 items (2,923 components)
Related Materials: 354 items (853 components)
Date(s) of Creation 1993-present
Creator(s) Korean Pavilion exhibition curators and exhibition teams ; Artists : Kim Seok Chul and Franco Mancuso (co-architects of the Korean Pavilion) ; Kim Eun-jeong (General Manager and Architect, Korean Pavilion) ; Arts Council Korea (ARKO) ; et al.

Related Materials – Venice Biennale

[E] International Exhibition

[N] National Pavilions

[R] Collateral Events

[O] La Biennale di Venezia Publications

[S] Other Reference Books

[S1] Korean Pavilion Exhibitions

[SS1] The 46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1995)

[SS2] The 6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1996)

[SS3] The 47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1997)

...

[SS27] The 60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2024)

[SS28] The 19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2025)

[S2] Korean Pavilion Operations

[SS1] Design & Construction

[SS2] Space & Facility Management

[SS3] Exhibition Commissioning & Administration

[SS4] Archive Development & Public Programs

[A] Correspondence and Attachments

- 1 From Archiban, To Studio Mancuso & Serena
- 2 From Studio Mancuso & Serena To Archiban
- 3 From/to Italian Entities and Institutions
- 4 From/to Venice Biennale
- 5 From/to Korean Institutions
- 6 From/to General Contractor (ICCEM)
- 7 From/to Various Firms and Industry Consultants

[B] Graphic elaborations

- 1 Preliminary Design Sketches
- 2 Architectural Drawings

[C] Models

- 1 Model for interim presentation

[D] Technical Reports

- 1 Studio Mancuso e Serena

* This series retains its original order.

[E] Authorization Acts

- 1 Opinion by Commissione di Salvaguardia
- 2 Authorization Private Building Department
- 3 Fire Department
- 4 First Convention, Concession
- 5 Outline Of Concession
- 6 Resolution of the City Council for Classification
- 7 Update of Regulations and Technical Sheets of the General Urban Development Plan (V.P.R.G.)
- 8 Update of the Detailed Plan
- 9 Regional Territorial Plan (PTRC) Excerpt

[G] Accounting, Contracts, Payments, etc.

- 1 company ICRAS (doors/windows/closures)
- 2 company ICCEM (General Contractor)
- 3 other companies

[F] Controls, Compliance, Technical Opinions

- 1 Quality certification of metal elements (Ferdofin)
- 2 Geological Survey Report (Sacchetto)
- 3 Vibrational Analysis on Micropiles (Elletipi)
- 4 Tensile Test cert. no. 164001 (Università di Padova)
- 5 Tensile Test cert. no. 164050 (Università di Padova)
- 6 Compression Test cert. no. 164000 (Università di Padova)
- 7 Static Test (eng: Pierluigi Moro)
- 8 Declaration of Conformity, Electrical System
- 9 Electrical Project (Studio Rodella Diego)
- 10 Declaration of Conformity for the Air Conditioning System (Imp. Veneziana s.r.l.)
- 11 Tree Assessment Report (Eutopia Studio)

[H] Photographic Images

- 1 Area before intervention
- 2 Color project drawings
- 3 Meeting with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in Seoul
- 4 Model photos
- 5 Groundbreaking Ceremony
- 6 Works in Progress
- 7 Opening ceremony
- 8 Finished works
- 9 Opening ceremony of Korean pavilion, 6th Architecture Biennale
- 10 Winter/Summer pictures
- 11 Opening ceremony of Korean pavilion, 8th Architecture Biennale
- 12 Finished works(Chemollo)
- 13 Maintenance Works
- 14 Relationship with trees
- 15 Various Events

[I] Various Promotional Materials

- 1 Exhibition Panels
- 2 Poster
- 3 Publication in Magazines and Journals
- 4 Newspapers Articles
- 5 Korean Awards/ Recognitions of Mancuso

[J] Remodelling project

- 1 Feasibility study (Phase I)
- 2 Feasibility study (Phase II)

[S3] Mancuso e Serena Architetti Associati

1 Mancuso summarized the purport of Cacciari's letter as “lent for use, not given as a gift.”
Oral History Research Series o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Arts, no. 339, Arts Council Korea, 2025, p. 36.

2 Kim Seok Chul, “The Story of Design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Files*, collection of Arts Council Korea.

3 Kim Seok Chul, *Manjin-ui Geochuk, Manjin-ui Dos* [Architecture for All, Cities for All] (Seoul: Sigongsa, 2013), p. 171.

4 Chun Jinyou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and Two Miracles,” *Dong-A Ilbo*, November 23, 2023.

5 Research Team: Chun Jinyoung, Lee Jongwo, Kim Eunhee, Choi Ilhee.

크레딧

주최·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총괄 → 정보원
기획 → 박수정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첼렉션 담당)
운영 → 이한솔
지원 → 하승희, 윤서정
홍보 → 이한솔, 강민수

글 → 전진영
3D 모델링 → 전진영, 이종우, 김은희, 최지희
웹 디자인 → 이지수 (Birdcall)
번역 → 김렐리스수진
영문 감수 → 김렐리스수진, 윤서정

언출편집 → 홍은주, 김형재
영상 편집 → 홍은주, 김형재, 이승진
디자인 → 홍은주, 김형재
인쇄 → 으뜸프로세스

자료기증 → 만쿠조&세레나 건축사사무소
자료제공 → 국가기록원, 베니스비엔날레 현대미술 역사아카이브(ASAC)

Credit

Presented by → Arts Council Korea
Organized by → ARKO Arts Archive
Supervised by → Cheong Bowon
Curator / Archivist → Park Soojung
Project Manager → Lee Hansol
Curatorial Assistants → Ha Seunghee, Yoon Seohyung
Communications → Lee Hansol, Kang Minsu

Contributor → Chun Jinyoung
3D Modeling → Chun Jinyoung, Lee Jongwoo, Kim Eunhee, Choi Jihee
Web Design → Lee Ji-soo (Birdcall)
English Translation → Alice S. Kim
English Editing → Alice S. Kim, Yoon Seohyung

Exhibition Graphics → Eunjoo Hong and Hyungjae Kim
Video Editing → Eunjoo Hong and Hyungjae Kim, Lee Seungjin
Graphic Design → Eunjoo Hong and Hyungjae Kim
Printed by → Top Process

Archive Donated by → Mancuso e Serena Architeti Associati
Materials Courtesy of → National Archives of Korea, Archivio Storico della Biennale di Venezia (ASAC)

«원 테이블: 7.

PAPER TO SPACE, 한국관»

One Table: 7. PAPER TO SPACE,

Padiglione Corea

2026년 8월 12일~11월 30일

아르코예술기록원 본원 열람실

무료관람

연계 프로그램
기록과 모델 사이 — <Tracing the Korean Pavilion in Venice> 제작 대담

일시 2026년 8월 24일(월)
오후 4시~5시 30분
장소 예술가의집 1층 라운지
패널 전진영(연구), 이종우(연구),
김은희(모델링), 최지희(모델링)
인원 30명(사전예약제/선착순)
문의 artsarchive@arko.or.kr

<Tracing the Korean Pavilion in Venice>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관 설계가 지나온 여덟 단계를 기록에 근거해 3D 모델로 재구성한 아카이브 웹 콘텐츠입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팩스로 오간 스케치와 단면이 없는 도면들까지 3D로 옮기며 어떤 판단이 필요했고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작업이 건축 아카이브에 어떤 질문을 남기는지를 모델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Between Record and Model
A Conversation on the Making of
Tracing the Korean Pavilion in Venice

Date Monday, 24 August 2026,
4:00~5:30 pm
Venue Ground-floor lounge, Artist House
Panel Chun Jinyoung (research), Lee Jongwoo (research), Kim Eunhee (modeling), Choi Jihee (modeling)
Contact artsarchive@arko.or.kr

Tracing the Korean Pavilion in Venice is an online archive project that reconstructs in 3D the successive design schemes through which the Korean Pavilion took shape, from the first proposals of 1993 to the building completed in 1995, working entirely from the archival record. In this conversation, the research and modeling teams discuss what the work required them to decide, and on what grounds — turning faxed sketches and drawings, many of them lacking section drawings, without sections into three-dimensional models — and what a project of this kind asks of architectural archives.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주말/법정공휴일 휴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2층

02-760-4751

artsarchive@arko.or.kr